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 ▶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14:00~16:00
- ▶ 장 소 : L7 호텔 명동 2층 미팅룸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 ☐ 제 목 :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 ☐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오후 14시 00분 ~ 16시 00분
- ☐ 장 소 : L7 호텔 명동 2층 미팅룸
- ☐ 일 정

시간	사 회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15:00	주 제 1.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 홀랜드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 이동혁 교수 (건국대학교) 주 제 2. 진로발달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김태선 박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주 제 3.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애경 박사 (연세대학교)
15:00~16:00	토 론 1.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황매향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토 론 2. 진로체험활동의 지향점 유정이 교수 (안양대학교) 토 론 3. 진로체험활동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주제 1.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홀랜드 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	2
주제 2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18
주제 3.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36
토론 1.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52
토론 2. 진로체험활동의 지향점	58

주제 1.



홀랜드 이론 및 진로정보처리 이론

주제 1.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홀랜드 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

이동혁(건국대학교)

1. 청소년 진로교육의 중요성

2013년에 발표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학업 및 진로문제를 호소한 청소년이 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이용건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도 학업 및 진로문제를 호소한 청소년이 13.6%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학업 및 진로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진로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발달단계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Super(1957)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효과적인 진로선택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에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시기이고, 직업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이러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탐색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3), 이를 통하여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프로그램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나 지도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모델을 채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체험활동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활동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그러므로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활동이 학교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원이 학교현장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

1) 진로체험활동의 정의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체험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김기현 외, 2014). 그런데 이러한 체험활동에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나 인턴쉽(internship)과 같이 직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활동 뿐 아니라 시청각자료를 통한 학습이나 직업인 초청 강연과 같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배, 2013;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서정화, 2012).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은 활동의 특성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기현 외, 2014). 첫째, 현장체험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체험활동은 현장에서 체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장 견학, 전공학과체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훈련체험 등을 의미한다. 간접체험활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직업정보수집이나 전문직업인의 초청강연 또는 직업인과의 인터뷰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체험활동이 구분되기도 한다(Stone & Aliga, 2005). 예를 들면, 실제 직장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인턴쉽이나 도제제도와 같은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업무관여

를 하는 활동이며, 실제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구성원의 업무를 관찰하게 되는 직무관찰(Job Shadowing)은 중간 수준의 업무관여를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현장견학과 같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관광을 하듯이 지켜보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업무관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

교육활동에서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던 Piaget나 학습과정에서 경험을 중요시 하였던 Dewey, 또한 능동적 참여학습을 중요시하였던 Lewin 등 다양한 학자들이 교육활동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조성심, 주석진, 2010). 이밖에도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체험학습모형을 개발한 Kolb(1984)는 학생이 학습과정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새로운 학습을 위한 능동적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때 보다 능동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학습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학습의 중요성은 진로교육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Herr과 Crammer(1972)에 따르면, 진로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직업에 대한 역할놀이나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다룰 수 있는 드라마 계획하기, 또는 직업인들과의 토론과 같은 활동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될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봉환(1997)도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면접에 대비한 사전훈련과 같이 실천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이현림과 김영숙(2005)은 활동 및 체험위주의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3)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진로체험활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hes, Bailey, Mechur(2001)에 따르면,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하여 출석률이나 졸업률이 더 높았으며, 대학진학률도 더 높았다고 하였다. Stone과 Aliaga(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수학과 과학성적이 높았으며,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인종, 부모의 교육정도, 지역, 이전 학업성취수준을 통제한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임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도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할수록 출석이나 졸업률이 높아져 진로체험활동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박가열, 2008; 정철영 외, 2012; 조은숙, 2011)

3. 진로선택이론

1) 홀랜드이론

홀랜드(John L. Holland)의 이론은 개인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개인-환경 모형을 기초로 발전된 이론이다(Swanson & Chu, 2000). 즉, 환경이 개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Walsh, Price, & Craik, 1992). 이러한 이론적 특성으로 인해 홀랜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이 서로 일치해야 함을 강조한다(Chartrand, 1991; Round & Tracy, 1990).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인이 속하게 될 환경의 특성이 서로 일치해야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홀랜드 이론은 4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6가지 성격유형은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그리고 관습형(Conventional)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실재형의 사람은 현실적인 결과가 있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연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고치고,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선호한다. (2) 탐구형의 사람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과학적 탐구나 연구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일을 선호하게 된다. (3) 예술형의 사람은 창작하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심미적인 활동에 끌린다. (4) 사회형의 사람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지도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사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선호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기업형의 사람은 판매하고 구매하며,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또한 설득하는 능력과 지도력, 대인관계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6) 관습형의 사람은 사무적이거나 조직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이며,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수학적 기술과 관리하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6가지 성격유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격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격특성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실재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사회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서 동일한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나 태도 또는 기술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직업활동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나 가치, 또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문제해결 방식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 물론, 한 사람이 하나의 성격유형에만 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가장 우세한 성격유형과 함께 우세하지는 않지만 부차적인 성격유형을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활동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선호는 흥미나 적성으로 발전하여 저마다 다른 직업이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Holland, 1997).

두번째 가정은 직업 환경도 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직업의 성격에 따라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또는 관습형 중 하나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의 성격은 결국 직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성격유형이 직업의 성격유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성격의 일을 선호하다보니, 하나의 직업에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결국 이들의 성격이 직업의 성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Holland, 1997).

세번째 가정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편하게 나타내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Holland, 1997).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현상은 직업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장도 자신의 직장에 맞는

사람을 구인이나 선발과정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네 번째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성격이 서로 일치할 때 만족도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성격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만족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2) 진로정보처리이론

진로정보처리이론(Career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Peterson, Sampson, Reardon, & Lenz, 1996; Sampson, Lenz, Reardon, & Peterson, 1999; Sampson, Peterson, Lenz, & Reardon, 1992; Sampson, Peterson, Reardon, & Lenz, 2000)은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학습되고 연습되어 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상담이나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이나 문제해결방식이 학습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Peterson, Sampson, Reardon, & Lenz, 1996; Peterson, Sampson, Lenz, & Reardon, 2002;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진로정보처리이론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의 내용을 의미하는 진로정보처리영역 피라미드와 진로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과정을 의미하는 CASVE ('커사비'라고 읽는다) 과정이다. CASVE는 의사결정과정 각 단계의 이름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명칭이다. 진로정보처리영역 피라미드는 진로의사결정을 하거나 진로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영역으로서 자신에 대한 지식, 직업에 대한 지식,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초인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SVE 과정은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commun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valuing), 실행(execution)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Peterson et al., 1991; Peterson et al., 2002, Peterson et al., 1996). 각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자기에 대한 지식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흥미, 기술, 가치 등을 알아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임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직업에 대한 지식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흥미나, 기술, 가치관 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진로의사결정과정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학습하게 된다면 계속되는 결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CASVE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의사결정과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초인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진로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정서나 생각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거나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격려하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CASVE 과정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단계는 진로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대학교 4학년에게는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취업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고 진로의사결정이 안되었다면 진로결정을 하려고 하게 된다. 또는 청년 실업 증가와 같은 뉴스를 듣게 되면 진로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로의사결정 또는 진로준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단계가 의사소통의 단계이다. 분석 단계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단계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 예를 들면 흥미나 기술, 가치관 등을 알아야 하며, 이에 적합한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단계가 분석단계이다. 종합 단계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직업 대안들을 선택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직업 대안의 수를 확장해 가고 여러 대안 중에서 자신에게 더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정해 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은 3-4개가 가장 적절하며 이렇게 대안의 수를 줄여갈

때 분석단계에서 수집된 나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정보가 활용된다. 평가 단계는 종합단계에서 선택한 3-4개의 직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단계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 특히 각 직업 대안이 갖는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관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이 평가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의 단계는 평가 단계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업 준비를 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직업이라면 교사가 되기 위한 실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행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는 다음 순위의 직업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진로 대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다시 의사소통 단계로 돌아가서 CASVE 과정을 다시 거쳐 가게 된다.

4. 진로선택이론을 통해 본 진로체험활동

진로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체험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선택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홀랜드 이론과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홀랜드 이론은 환경과 개인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성과 환경을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도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체험활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기존의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김승보(2010)에 따르면, 진로체험활동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진로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뿐 아니라 진로가치관과 같은 자신의 특성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미석(2011)도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게 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과 교육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진로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필요한 교육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체험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턴쉽과 같은 직업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자신이 하는 업무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스타일 또는 자신의 가치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간접적인 진로체험활동(예, 바리스타 경험, 직장방문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능력은 어떤지 등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진로체험활동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 진로체험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하여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직업에 대한 정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는 활자나 이미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직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는 활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평균적인 정보에 비하여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진로체험활동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인지 기술이 적용되는 활동이다. Kolb(1984)에 따르면,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하여 단순히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토대로 진로의사결정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초인지를 성공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인지는 진로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진로체험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적 자기 관찰과 점검은 결국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인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진로체험활동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초인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 연습을 하게 된다. 즉, 진로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시켜 보게 되고,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직업활동이 자신의 흥미나 능력 또는 가치관과 맞는지 점검해 보게 된다. 그리고 직업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계획을 세우게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는 진로교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로교육은 ‘물고기를 주는 활동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활동’이라고 하면서 진로를 선택해 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로체험활동도 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방법을 배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 과정에서 진로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5. 결론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체험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활동이다. 그런데 진로체험활동은 단순히 직업체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즉, 직업체험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하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직업경험을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경험은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인지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로의사결정 방향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로체험활동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을 연습하게 된다. 즉, 체험활동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시켜 보고 일치여부에 따라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대안을 탐색하는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진로체험활동이 진로의사결정방법을 가르치는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선택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로선택의 중요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진로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인지 기술의 적용이나 진로의사결정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밀히 계획하지 않으면, 진로체험활동은 단순히 직업을 경험해 보는 활동으로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진로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체험 과정 동안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을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하여 진로선택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성취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서울 교육부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 19-36.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보 (2010).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 2010년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자료집, 51-5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 1-23.
- 박가열 (2008). 초, 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 115-130.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언 (2005).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분석. 제1차 교육고용패널 (KEEP) 학술대회자료집, 639-65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서정화 (2012). 지역사회 기반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1, 217-240.
-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 (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 1-17.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 47-64.

- 조은숙 (2011). 청소년의 인턴쉽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 191-208.
- 진미석 (2013).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제1회 진로교육포럼 발표자료, 53-8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hartrand, J. M. (1991). The evolution of trait-and-factor career counseling: A person X environment fit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518-524.
- Herr, E. L., & Crammer, S. H. (1972). *Vocational guidance and career development in the school*.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ughes, K. L., Bailey, T. R., & Mechur, M. (2001). *School-to-work: Making a difference in education*. NY: New York Institute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terson, G. W., Sampson, J. P., Lenz, J. G., & Reardon, R. C. (2002). Becoming career problem solvers and decision maker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In D. Brown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312-369). San Francisco: Jossey-Bass.
- Peterson, G. W., Sampson, J. P.,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eterson, G. W., Sampson, J. P., Reardon, R.C., & Lenz J. G. (1996). Becoming career problem solvers and decision maker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423-475). San Francisco: Jossey-Bass.
- Round, J. B., & Tracey, T. J. (1990). From trait-and-factor to person-environment fit counseling: Theory and process.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 psychology (pp. 1–4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ampson, J. P., Lenz, J. G., Reardon, R. C., & Peterson, G. W. (1999).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employment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 3–18.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The Career Cognitve Quarterly*, 41, 67–74.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s Inventory workbook*.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mpson, J. P., Peterson, G. W., Reardon, R. C., & Lenz, J. G. (2000). Using readingness assessment to improve career service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146–174.
- Stone, J. R., & Aliaga, O. A. (2005).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nd school-to-work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articipation and outcome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0, 125–144.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Swanson, J. L., & Chu, S. P. (2000). Applications of person–environment psychology to the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of adolescents and adults. In W. E. Martin, Jr. & J. L. Swartz (Ed.), *Person–environment psychology and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143–16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alsh, W. B., Price, R. H., & Craik, K. H. (1992). Person–environment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W. B. Walsh, K. H. Craik, & R. H. Price (Eds.), *Person–environment psychology: Models and perspectives* (pp. vii–xi). Mahwah, NJ: Lawrence Erlbaum.

주제 2.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주제 2.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김태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진로교육법의 제정되고 2015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더구나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역량강화가 요청되고 진로체험 기회의 확대가 주요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진로체험이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행한 진로체험 매뉴얼 (2015, 5p) 에 따르면, 진로체험의 개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라 하였다. 이는 진로교육법 제 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직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배우거나, 직접 직업 체험을 하거나 구조화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현장직업체험형, 2) 직업실무체험형, 3) 현장견학형, 4) 학과체험형, 5) 진로캠프형, 6) 강연형·대화형의 여섯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진로체험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은 2015년도 진로체험에 대한 비판으로 대상 학생에게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기 보다는 견학이나 단순 체험 중심이었다는 것과 지역 등에 따라 그 체험의 다양성에 차별이 있었다 점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6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진로체험 내실화 및 다양화’는 2016년 핵심추진 과제중 하나이다. 본 계획에는 향후 과제로 양질의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제공과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및 대학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나아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인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이 진로체험으로 어떤 것이 제공되어야하고,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는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진로체험의 목표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어야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목표를 살펴보고, 진로체험활동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발달이론 가운데 Super이론 및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정의하고, 목적을 구체화하며 고려해야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Super 의 진로발달 이론에서 본 진로체험 활동

진로발달이론의 주요한 기여는 '진로'의 개념이 연속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진로발달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를 보여주고, 진로성숙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학자인 Super (1980)는 진로를 정의할때, 개인이 일생동안 담당하는 일련의 역할들의 결합체라고 표현하였다. 본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시간의 개념으로는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공간의 개념으로 직장 이외의 장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고려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Super의 이론의 주요개념은 1) 진로자아개념, 2) 전생애이론, 3) 생애공간이론, 4) 진로성숙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네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Super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진로체험이 어떻게 과업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 Super 의 자아개념 (self-concept)

Super (1990)는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의 발달을 통해 진로발달을 설명하였다. Super와 Jordaan (1973)는 개인은 아동기에는 가정이나 학교내에서 중요한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개념을 발달 시켜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검증 등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만족할만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Super, Savickas, & Super, 1996), 삶의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은 현재와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개척해나갈 때 필요한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Super(1990)는 이러한 자아개념이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의 적성, 흥미, 가치,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정, 학교, 또래집단, 사회 문화 및 경제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 같은 개입이 성인기의 일 혹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Super의 전생애이론: 아동 및 청소년기

Super (1973, 1980, 1990)는 여러 논문을 통해 개인은 일생동안 일련의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수행하는 과업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개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의 과정을 거치며 진로를 발달해 나아가는데,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성장과 탐색 단계이다.

첫째 단계인 성장단계는 태어나면서부터 14세까지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때의 자아개념은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하게 된다. 초기에는 개인이 원하는 것과 환상이 가장 중요하고, 점차 사회에 참여하면서 현실검증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의 세 단계의 하위영역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욕구탐색이 중심 과제이며, 역할극 놀이를 통해 자신의 환상을 경험하고 표현한다. 또한,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중심으로 자신이 하는 활동과 장래희망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능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 탐색기는 15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되는 시기이다. 본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 여러 역할들을 경험하고, 학교에서나 여가활동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업탐색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하위단계는 결정화 (crystallization), 구체화 (specification), 실행 (implementation) 단계로 자신의 흥미와 욕구, 가치, 직업과 관련된 기회와 필요한 능력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장기와 탐색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발달 과업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놀이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희망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화기의 청소년들은 특정한 직업 선호를 갖게 된다. 또한, 원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자신이 얼마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등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Super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여 후기에 제안한 바는 개인의 진로발달단계는 연령의 발달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한 단계내에서 다시 전환단계가 일어난다는 재순환의 개념을 소개했다. 재순환이란 한 단계내에서 전체의 순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기와 탐색기를 지나 확립기를 지나고 있는 개인이라도, 확립기내에서 다시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 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Super의 생애공간이론

개인의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고려되어야할 바는 그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 부모, 여가인, 시민 등 다양한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Super, 1980). 개인은 직장에서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다른 맥락에서 각각 수행하는 역할도 다르다는 것이다. Super에 따르면, 개인은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때, 삶의 특정 시기마다 더 중요시 되거나 집중하는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시기에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은퇴자로서의 역할을 삶의 후반기에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Super는 이러한 역할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지만 역할의 정의 자체가 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기의 자녀역할과 성인이 된 이후의 자녀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마다 여러 역할들의 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도 개개의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uper는 1979부터 실시한 Work Important Study에서 개인의 여러 생애역할과 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 Super와 Nevill (1986)는 역할지향성 척도(Salience Inventory: SI)를 개발하였는데, 연구 결과 고등학생은 일, 여가, 학업, 직업사회봉사, 가정꾸미기 등 가운데, 여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생은 공부, 성인은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Sverko, 2001).

4) Super의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진로계획, 진로탐색의 자원, 진로관련 정보와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보이는 특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Crites, 1974; Super, 1973). 다시 말하면, 진로성숙은 개인이 달성해야하는 진로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얼마나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Super (1955)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첫째, 개인이 직업선택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로 선택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이다. 둘째, 개인이 직업관련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으며, 진로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평가한다. 셋째, 개인의 직업관련 선호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이며, 넷째는 개인의 흥미, 적성 등의 특성이 얼마나 구체화되었는가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직업선호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진로성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평가하고자 사용된 개념인 만큼 개인의 진로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과 진로체험

위와 같이 Super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진로자아개념은 삶의 여러과정을 거치며 변화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상급학교진학이나 구직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시기이다. 더불어 고려해야할 점은 개인이 삶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은 직업인 외에도 부모, 여가인, 자녀, 시민 등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로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

(1) 균형있는 자아개념 발달

진로체험은 진로자아개념 발달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 흥미, 욕구를 구체화하고 적성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자아개념이 사회학습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다양한 사회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을 확인하고 일에 대한 가치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Johnson과 Mortimer (2002)는 개인이 진로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의 불평등한 기회, 가족의 지지나 자원의 차이 등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관련

경험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하는 진로체험활동은 개인에게 공평하게 자아개념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은 영상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혹은 전문직업인의 특강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모의 체험을 통해 직업실무를 경험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갖고 있던 흥미나 적성을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균형있는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2) 진로발달 과업 달성 및 진로성숙

진로체험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업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업들을 탐색하고 결정해나가는 것을 돕는다. Super 는 진로 흥미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이라하였다. 구체적으로 탐색기의 청소년들은 몇가지 진로가운데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 혹은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하고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대학교 등을 견학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확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 견학과 관공서나 가게 혹은 병원에서 관련업무를 직접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능력과 적성을 확인하고, 어떠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필요한한 진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진로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3) 다양한 생애역할 고려

진로체험은 개인에게 다양한 생애역할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장벽이 무엇일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Super는 개인이 삶에서 여러역할을 수행하는데,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역할지향성을 조사했을 때, 서양의 결과와 달리1 순위가 여가인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역할이 다른 역할에 비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역할에만 집중할 때, 장기적인 진로설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는 신입사원의 높은 퇴사율이 주목받고 있다. 노력하여 입사한 직장에서 직업인 이외의 여가인과 같은 다른 삶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원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지혜, 이상원, 2016; 신혜정, 2016). 이러한 시행착오는 진로선택을 할 때, 직업인으로서의 개인만을 고려하고, 다른 역할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에는 여러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어야하고, 이는 진로체험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자녀, 부모 혹은 여가인 등의 다른 여러 역할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영위해 나아가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4)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

진로체험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Super (1953)는 진로발달은 자아와 현실간의 타협 혹은 개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타협과정으로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타협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현실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청소년기에 직업인으로의 역할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타협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원하는 진로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진로장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Super가 제안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업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직업인들과 교류하고 간접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삶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은 자아와 현실간의 타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비하고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으로는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발전시킨 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겠다.

3. 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본 진로체험 활동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Super의 진로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Savickas (2002)는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객관적인 관점’뿐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도 중요시했다.

Form과 Miller (1949) 등 같은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진로관련행동에서 일련의 공통된 객관적인 지표 및 반복되는 방식을 연구했다면, Super (1954)는직 업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이에, Savickas는 Super가 제시한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단계를 수정하였고,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Super의 이론을 확장하였다. 첫째는 개인은 현실을 인식하여 구성하는 수동적인 존재가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나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내적 성숙에 관심을 갖기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직업세계에서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주요 주제인 직업적 성격, 진로적응도, 생애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의 의미를 논의하겠다.

1) 직업적 성격 (vocational personality)

직업적 성격은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적성, 가치, 흥미, 욕구 등을 말한다. 개인의 선천적인 성격들은 가정,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발달하고, 이후에 직업영역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이 기존의 특성-요인이론과 차별화되는 점은 개인의 흥미, 적성 등을 장래를 예측할수 있는 고정된 특성이아니라 변화가능한 잠재력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적 성격은 독자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사회환경과 문화 및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흥미를 개인의 사회적 ‘평판’으로 보고 흥미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기보다 직업환경에서 발현되고 의미를 갖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2) 진로적응도 (career adaptability)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서 진로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위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진로성숙이라고 하는 반면, 성인기의 자신의 직업환경에 대처하는 준비도를 ‘진로적응’이라

명명하였다 (Savickas, 1997).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발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와 같은 다섯가지 행동이 진로전환과정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특성-요인이론에서 각각의 개인의 특성과 직업요인에 관심을 가졌다면,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은 둘 사이의 매칭에 주목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들이 적응에 해당된다. 이에, 적응적인 개인은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직업 전망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호기심'을 갖고, 장래희망을 추구하는데 '자신감'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이 진로적응도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증가하는 것이 진로상담의 목표이기도 하다.

3) 생애주제

생애주제는 일의 영역에서 개인이 중요시하는 바와 진로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개인의 진로에서 어떻게 의미있는 선택을 하는가, 일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서 고유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개인 고유의 주제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의 일이 사회와 타인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은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 Savickas 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과 진로체험

위와 같이 Savickas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성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주어진 과업들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진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주제들을 발견하고 자신과 사회에 의미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진로의 과업들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진로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탐색해보겠다.

(1) 개인의 직업적 성격파악

진로체험은 개인의 직업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업적

성격은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말하는데,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직업환경에서 유동적으로 발현되는 잠재력에 가까운 것들이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로체험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게 된다. 청소년들이 직업환경에서 모의로 혹은 직접적으로 직무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이 직업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타인과 비교하여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판단할 수 있다.

(2) 직업적응력 향상

진로체험은 개인의 직업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로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 갖는 태도와 기술이 진로적응력이다. Savickas (1997)는 진로적응력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한데, 장래를 계획하고 환경과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장래 직업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미래의 일에 호기심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다. 특히,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직업인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자신감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3) 생애주제 확인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애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 교과교육만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애주제를 탐색하고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업에 큰 가치를 두고 생활하게 되는 학생의 시기에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일지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부모이외의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진로체험활동은 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의 직업성격을 파악하게 돕고, 진로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일과 관련된 경험을 넓혀주어 생애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4. 진로발달이론을 바탕으로 한 진로체험활동의 제안점

이와 같이 진로체험활동은 학생들이 Super생애진로발달이론과 Savickas의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발달과업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학년기별 구체적인 진로체험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효과평가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청소년기에 달성해야할 진로발달 과업들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학년별 구체적인 진로발달 과업을 설정하는 것이 진로체험 활동 목표수립을 위한 선행과제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개발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한 인증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진로체험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진행되는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진로체험활동의 활용에 대한 교육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것만큼 참여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성주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하다. 학생마다 같은 활동이라도 개인의 직업성격 혹은 생애주제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체험과 경험을 어떻게 자신의 진로발달에 적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여러 진로발달 연구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진로체험이 진로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Terry (1999)는 7세에서 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지역사회기반 진로프로

그램을 제안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인 학생들은 자신의 멘토들에게서 장래에 어떤 진로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캠프이다. Gibson과 Chase (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주간의 여름방학 과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청했지만 참석못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캠프이후에도 과학에 대한 호의를 유지하고,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진로체험도 지역대학, 지역사회의 산업체와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인다.

4) 지역 간의 균형있는 진로체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발달이 자아개념의 발달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요인만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개인의 발전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흥미와 적성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관련 경험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사회경제지위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학교가 주도하는 진로체험활동은 이러한 개인의 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및 특화된 산업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다른 지역의 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진로교육 및 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온라인을 통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멘토링의 경우 물리적 제약 없이 원격으로 멘토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용하다.

5) 다문화요소를 고려한 진로체험

진로발달에서 성별, 가정환경, 인종 등의 다양한 문화적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문화환경적 요소는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개인의 생애주제를 형성하고 확인하게 한다. 따라서 진로체험에도 이러한 문화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에서 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가족부, 2015). 진로체험에 앞서 성별로 인한 진로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더라도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의 성에대한 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체험에 있어서 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균형있는 활동 구성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활동에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인기의 모습을 학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관리자와 일반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에 힘써야하며, 특히 역량있는 진로전담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현아, 김승보, 정란 (2015). 진로체험 운영 및 ‘꿈길’ 활용매뉴얼, 교육부.
- 김지화 (2016). 2016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Retrived from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download.do?boardSeq=136223>.
- 송지혜, 이상원 (2016, 3, 2).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시사인, Retrived from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1>.
- 신혜정 (2016, 6, 18). 퇴사하려는 신입사원, 꼭 붙잡으려는 회사들. 한국일보, Retrived from
<http://hankookilbo.com/v/2ffd636dfc0d47b3a235da28535aaa0c>
- 정해숙, 문유경, 최윤정, 권소영, 이현구 (2015).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Crites, J. O. (1974).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5-31.
- Form, W. H., & Miller, D. C. (1949). Occupational career pattern as a sociological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17-329.
- Gibson, H. L., & Chase, C. (2002). Longitudinal impact of an inquiry-based science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science. *Science Education*, 86(5), 693-705.
- Johnson, M. K., & Mortimer, J. T. (2002).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D. Brown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37-84). San Francisco: Jossey-Bass.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s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 behavior. In D. Brown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49–205). San Francisco: Jossey–Bass.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Wiley.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73). The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2), 37–50.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30–44.
- Super, D. E., & Nevill, D. D. (1986). *The salience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uper, D. E., & Jordaan, J. P. (1973). Career development theor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1), 3–16.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 Bass.
- Super, D. E., & Šverko, B. (1995).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San Francisco: Jossey–Bass.
- Šverko, B. (2001). Life roles and valu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Super's contribution through the work importanc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1-2), 121-130.

Terry, J. (1999). A community/school mentoring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237-240.

주제 3.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주제 3.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사회학습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애경(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21 Plus 글로벌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1. 들어가며

Albert Bandura(1925~)의 사회인지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인을 관찰하면서 학습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며, 학습은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과 같은 세 가지 결정요인의 상호 작용 결과라고 본다. 고전적·조작적 조건형성 등의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시대에 처음 소개된 Bandura(1986, 1997)의 사회학습이론과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심리학 및 교육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에 인지주의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harf, 2014).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학 또한 이러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부터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포함한 사회학습이론과 Lent, Brown, Hackett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이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학습의 서로 다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이 특색 있는 이론이 되었다(Sharf, 2014). 구체적으로,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환경, 개인적 요인, 행동 세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결정된다는 Bandura(1999)의 삼각 상호작용 모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Lent, Brown, Hackett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두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경험과 진로행동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바탕으로 진로체험활동과 밀접한 이 두 이론을 묶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사회학습진로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이론의 주요 개념과

명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각 이론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과 목표, 활용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2. 사회학습진로이론

1) 사회학습진로이론의 주요 개념

사회학습진로이론은 Kromboltz가 제안한 이론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행동과 인지를 중요하게 다룬다(Sharf, 2014). 사회학습진로이론의 중요한 개념으로는 유전적 자질, 환경적 여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이 있으며, 이론에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들 요인간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Kromboltz, 1994, 2009; Mitchell & Krumboltz, 1996).

(1) 유전적 자질

유전적 자질은 학습으로 획득된 것이 아닌 선천적·유전적 개인적인 특성을 이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조건, 특별한 재능 등이 포함된다.

(2) 환경적 여건과 사건

환경적 여건과 사건은 개인 통제 밖에 있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지리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적 여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환경적 여건과 사건은 자연재해, 기술적인 발전, 사회 인프라 및 경제구조, 정치적 안정, 교육환경, 직업의 수요 등과 같은 외부 여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부모 등의 양육자, 또래 집단 등과 같은 관계적 여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Kromboltz가 가장 최근에 제안한 계획된 우연 학습 이론(Heppenstance Learning Theory: Kromboltz, 2009)은 개인 통제 밖의 우연적 사건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3) 학습경험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학습경험을 도구적 학습경험과 연합적 학습경험으로 분류한다. 도구적 학습경험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로 이어지는 학습경험을 이르는 개념으로, 행동 자체가 학습활동인 경험을 의미한다. 연합적 학습경험은 관찰이나 고전적 조건형성 등과 같이 중립적인 상황이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선호 등과 연합이 되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4) 과제접근 기술

과제접근 기술은 목표설정, 가치 명료화, 대안 생성, 직업정보 습득 등 진로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계획된 우연 학습 이론에서는 과제접근 기술을 개발하여 우연한 기회와 사건을 건설적으로 진로탐색 및 전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고자 한다.

2) 사회학습진로이론의 주요 명제

Kromboltz는 개인이 환경적 여건과 사건의 영향력 아래 학습경험과 유전적 자질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 세상에 대한 일반화 등과 같은 인지도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과 유전적 자질이 개별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은 경험과 자질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면과 다른 사람이나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일반화된 상을 형성한다. 사회학습진로이론에서는 이러한 일반화된 인지도식들이 과제접근기술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

3) 사회학습진로이론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사회학습진로이론에서는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선호하게 되는 과정을 개인의 이전 학습경험의 결과로 인해 형성된 일반화된 진술로 설명하며, 이후 과제접근기술에 의해 목표설정이나 탐색활동 등으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경험에 노출되어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과 세상에 대한 일반화는 진로체험활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학습진로이론에서 바라보는 경험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일반화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나 능력,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도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실제 작업 환경이나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그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접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은 특정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직업체험활동 중 하나이다. Krumboltz는 초기 연구들을 통해 고등학생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평가한 바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학생들은 간접경험(책 등)으로 직업정보를 접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mboltz, 1970; Krumboltz, Baker, & Johnson, 1968). 시뮬레이션은 참여청소년에게 미래 직업군과 비슷한 작업환경을 경험하면서 수행과업에서 성공경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힘들어서 실패하거나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시뮬레이션의 전체 과제의 구성이 너무 단순하고 기본적인 작업에만 치우쳐서 청소년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4)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적용목표 및 활용방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학회에서는 기존 이론들이 미국백인·중산층·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 등의 사회주류계층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lores, 2014). 특히 진로이론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경험이나 문화권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Heppner & Jung, 2013)은 한국 진로상담학회에서도 유효한 고민일 것이다. 사회인지학습이론 또한 미국에서 개발되고 연구되어온 이론이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때에도 한·미간 문화적인 차이나 사회적

차이를 비롯하여 한국 청소년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은 공적자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 진로체험활동을 비롯한 직접적인 학습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탐색이나 학습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렇게 부족하고 편향된 학습경험으로 인해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 및 세상에 대한 일반화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사회인지학습이론은 진로체험활동 등의 학습경험의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이 기회가 청소년의 사회계층이나 젠더, 장애,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가용한 자원이나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경근, 2005; 김위정, 김양분, 2013), 이러한 계층적·지역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적 기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및 진로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따라서 국내의 진로체험활동 또한 자원과 기회의 차이를 고려하여 체험활동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역할모델이 부족하여 간접학습의 경험조차 제한된 청소년들(장애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은 진로상담전문가의 평가와 계획 아래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지적인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인지학습이론은 다른 이론과 비교하여 상담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상담이론이다. 예를 들어, Krumboltz의 논문은 일관성 있게 축어록을 포함한 상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전문적인 평가와 전략적 개입을 강조한다(예: Krumboltz,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체험활동도 상담전문가가 내담자의 진로관련신념 및 일반화 진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잘못된 신념이나 정확하지 않은 일반화 진술을 수정하기 위한 처방 및 개입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며, 일방적인 처방이 아니라 반드시 내담자와의 브레인스토밍 후에 제시되는 특성을 보인다(Krumboltz, 2015). 따라서 일선 학교나 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청소년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진로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조력할 전문상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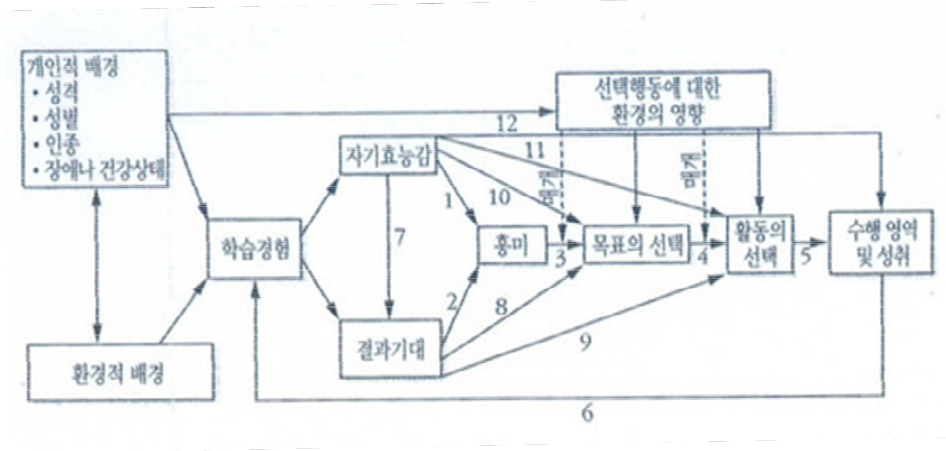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한국문화를 감안할 때, Krumboltz가 학습상황에서 학생들

간 경쟁과 학습의 수단화를 극도로 우려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rumboltz, 2015). 사회인지학습이론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Krumboltz, 2015), 진로체험활동 또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탐색하기 위한 활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의 목적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며, 진로체험활동이 반드시 그 진로에 대한 흥미의 증가나 직업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진로체험활동에 대해 성적 등의 순위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이 탐색 후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참여주체에게 진로체험활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리는 등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인지진로이론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요 개념 및 명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Lent, Brown, & Hackett (1996, 2002)이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소개된 자기효능감을 진로이론으로 도입하여 제안한 이론으로, 현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학에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로 꼽힌다. 여성의 진로발달에서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연구했던 Hackett & Betz (1981)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학습경험과 자기효능감, 결과기대를 중심으로 흥미발달과 진로목표설정 등 진로발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발달모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모형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정해진 유형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Bandura, 1986, p.391; Sharf, 2016 재인용)이다. 일찍이 Betz (1992)는 자기효능감을 진로상담 맥락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적 수행성취,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네 가지 학습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Lent, Brown, Hackett, 1996).

(2)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학습 활동의 결과나 기대에 관한 믿음으로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기대 또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3) 목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나가는 과정 중에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2)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행동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진로이론에 비해 인지적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다(Sharf, 2014).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학습경험이 중요한 구인이지만, 학습경험 그 자체보다도 학습경험이 어떠한 맥락이 발생하며 그 결과 결과기대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여학생의 과학기술수학공학(STEM)분야 진로선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이유를 서로 다른 학습경험으로 인한 낮은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의 영향, 그로 인한 낮게 형성된 흥미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연구들이 여자 청소년이나 소수인종·민족 청소년들이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사회적·학문적 역할모델이 부족하고, 교사나 부모 및 또래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격려나 칭찬을 받는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Navarro, Flores, & Worthington, 2007; Ali & McWhirter, 2006), 미국에서는 여학생이나 소수인종 학생들의 STEM분야 진로에 관한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국가적 지원이 있어왔다(White House, 2016). 또한 최근에는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장애와 같은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배경·맥락적 요인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Thompson & Dahling,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진로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론인 만큼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다. Betz & Schifano (2000)의 연구에서는 홀랜드유형 중 실재적/현실적 영역에 중간정도의 흥미를 보이면서 낮은 효능감을 보고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수자를 통해 네 가지 학습경험을 고루 할 수 있도록 중재한 결과 사전-사후 검사에서 이들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해당 효능감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나 관련 영역의 직업에 관한 흥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Weisgram & Biger (2006)은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TEM분야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결과기대를 수정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학회 형식의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자청소년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3)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적용목표 및 활용방안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은 편이다. 한국에서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학습경험, 효능감, 결과기대와 흥미 및 진로선택 모형은 검증된 바 있으며, 여성의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손은령,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 손애라, 유순화, 윤경미, 2015).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체험활동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의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로체험활동의 내용이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경험 양식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수행활동, 타인 수행과정의 관찰 등의 대리학습경험, 교사나 인솔자의 격려 및 지지와 같은 사회적 설득, 활동 수행과정 중의 긍정적인 생리적·정서적 경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은 해당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진로장벽이나 부족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탐색이 어렵거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사회에서 부모나 교사의 기대나 선호에 의해 진로탐색이나 선택이 제한되거나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진 직업이 크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는 등 진로탐색에 있어서 외부환경의 영향이 큰 편이다(김은영, 2002; 김장희, 김계현, 2009). 또한 국가간 양성평등지수(145개국 중 115위, World Economic Forum, 2015)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9, 2011)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고 취업 또한 낮은 소득 직종이나 돌봄노동 등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선호되는 직종에 국한되어 실시되거나 혹은 반대로 전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선택되었던 직종으로 한정되어 실시된다면, 오히려 진로체험활동이 사회불평등 및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진로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상담전문가나 주최하는 기관은 해당 청소년의 기존 학습경험과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진로선택 및 결정에 따른 노력과 탐색과 같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선형적인 진로발달에 국한된 진로교육의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Blustein, 2001; Blustein et al., 2002). 따라서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지지적인 환경에서 실질적인 탐색과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효능감을 획득하고 필요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Albert Bandura(1925~)의 사회인지이론의 영향을 받은 진로이론인 Krumboltz의 사회학습진로이론과 Lent, Brown, Hackett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중심으로 진로체험활동의 의미와 한국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두 이론에서의 시사점으로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와 흥미를 탐색할 때,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탐색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련 과제수행을 통한 적극적인 탐색활동을 지지하고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높일 수 있는 단계적으로 고안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로체험활동을 계획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 집단(사회계층이나 지역) 및 사회적 정체성(젠더, 장애, 성적지향 등)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기대를 강화할 수도 있는 진로체험활동의 한계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이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으로서 진로체험활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진로체험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 학교밖 청소년, 비도시 지역 거주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청소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직업세계 탐색을 효과적으로 돕고 향후 진로설계 및 직업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진로교육과 같이 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집단교육이나 프로그램 실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나 필요에 관한 전문상담교사나 진로상담전문가의 전문적인 면담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단계적 진로체험활동이 제공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 1-27.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 김장희, 김계현. (2009).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분석. *상담학연구*, 10(1), 323-340.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3 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서울: 보건복지부.
- 손애라, 유순화, 윤경미. (2015). 사회인지적 진로집단상담이 공과대학 여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34(3), 151-170.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Ali, S. R., & McWhirter, E. H. (2006). Rural Appalachian youth' s vocational/educational postsecondary aspirations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2), 87-11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Betz, N. E. (1992). Counseling uses of career self-efficacy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22–26.
- Betz, N. E., & Schifano, R. S. (2000).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to increase realistic self-efficacy and interest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35–52.
- Blustein, D. L. (2001). Extending the reach of vocational psychology: Toward an inclusive and integrative psychology of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171–182.
- Blustein, D. L., Chaves, A. P., Diemer, M. A., Gallagher, L. A., Marshall, K. G., Sirin, S., & Bhati, K. S. (2002).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11.
- Flores, L. Y. (2014). Empowering life choices: Career counseling in the contexts of race and class. In N. C. Gysbers, M. J. Heppner, & J. A. Johnston (Eds.), *Career Counseling: Contexts, Processes, and Techniques* (pp. 51–77). Boston, MA: Allyn & Bacon.
- Hackett, G., & Betz, N.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eppner, M., & Jung, A. (2013). Gender and social class: Powerful predictors of a life journey. In W. B. Walsh, M. Savickas, & P. J. Hartung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4th ed.) (pp. 81–102). New York, NY: Routledge. <http://dx.doi.org/10.4324/9780203143209>
- Kromholtz, J. D. (1994). Improv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from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55–80). Palo Alto, CA: Consulting

- Psychologists Press.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Krumboltz, J. D. (2015). Practical career counseling applications of the Heppenstance Learning Theory. In P. Hartung, M. Savickas, & B. Walsh (Ed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Volume 2: Applications*. APA handbooks in psychology, (pp. 283–2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rumboltz, J. D. (Ed.). (1970). *Job experience kits*. Chicago, I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Krumboltz, J. D., Baker, R. D., & Johnson, R. G. (1968). *Vocational problem-solving experiences for stimulating career exploration and interests: Phase II*.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373–4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55–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96). Krumboltz' 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and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233–28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avarro, R. L., Flores, L. Y., & Worthington, R. L. (2007). Mexican American middle school students' goal intentions in mathematics and science: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320.
- Sharf, R. S. (2014).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

Cengage Learning.

- Thompson, M. N., & Dahling, J. J. (2012). Perceived social status and learning experience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351–361.
- Weisgram, E. S., & Bigler, R. S. (2006). Girls and science careers: The role of altruistic values and attitudes about scientific task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326–348.
- White House (2016). Women in STEM. Retrieved from the White House website <https://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ostp/women> (July 1, 2016).
- World Economic Forum (2015). Global Gender Gap Report. Retrieved from the website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5/> (July 1, 2016)

토론 1.

.....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토론1.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황매향(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1. 토론에 앞서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5년 79%의 학교가 참여하고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실시되어(최상덕 외, 2015), 어느새 새로운 학교 체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제도의 구상에서부터 실행까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핵심인 진로체험활동을 다양한 진로관련 이론의 틀에서 조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로 발표를 해 준 학자들에게 동료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2. 무엇을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로 정의하는가?

1) 진로관련 이론에 근거한 효과성

발표 내용을 통해 서로 다른 이론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또는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잇점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홀랜드 이론을 비롯해 여러 이론에서 제안하는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는 크게 자기이해, 직업세계이해, 장벽과 그 극복에 대한 정보와 역량의 획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공통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이해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흥미), 잘하는지(능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치)에 대해 활자화된 자료와 정해진 일상생활의 경험이 주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직접 일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자신과 일의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실감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한다. 즉, 자신의 직업적 흥미, 직업적 소질과 적성, 직업적 가치관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하여 단순히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토대로 진로의사결정을 보다 구체화”(이동혁)하여 자기이해를 넘어 의사결정능력의 함양까지 나아가게 된다.

다음으로, 진로체험활동은 여러 직업을 몸소 경험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실제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물론 진로체험활동은 그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해서, 그 종류(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강연형·대화형)에 따라 직업세계에 대해 습득하게 되는 지식도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부모이외의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김태선)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진로관련체험은 전적으로 가정의 몫으로 부모가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활동의 역할은 크다. “진로체험활동 등의 학습경험의 비용이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이 기회가 청소년의 사회계층이나 젠더, 장애,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애경)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활동은 장벽과 그 극복에 대한 정보와 역량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직업 나아가 진로든 장벽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없다. 물론 그 장벽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한 개인의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로장벽은 특정 직업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을 비롯해 직업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승진, 고용의 안정성, 은퇴 등 다양한 장면에 포진해 있다. 또한 장벽은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되는데, 실제 존재하는

장벽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반대로 장벽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지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는 장벽 자체보다도 장벽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장벽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어떤 진로의 여정에 있든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와 극복 역량의 함양이 진로체험 활동만을 통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장벽에 대한 보다 적극적 사고와 관심을 갖게 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하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진로적응도는 모두 여기에 관련된다.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진로체험활동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흥미이기보다는 장벽에 가깝다. “그 일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엄청 노력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여요” 등의 보고는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여러 번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장벽은 모든 직업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서로 다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나라면 어떻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며, 운이 좋은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역할모델도 만나게 된다.

2)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이 지향하는 효과성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은 과연 무엇을 그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지난 해까지 실시된 시범학교 운영의 효과를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에 따르면, 교육과정 및 수업 변화가 학생의 교육성과, 교사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교사 역량, 교사의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덕 외, 2015).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나타난 교육성과는 “진로 탐색 활동의 변화가 학생과 교사 관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방법의 변화가 교우관계, 진로탐색 역량, 미래 핵심역량, 학교생활 행복감, 전반적 만족도 등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70~71쪽)”로 보고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슬로건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는 여러 교육제도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입시위주교육의 탈피를 목적으로 구안된 것으로 안다. “자유”란 정해진 교육과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입의 출서기가 아닌 대안을 찾아볼 시간을 주자는 의미로 한 학기 또는 학년의 시간을 상정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직업인의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대입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들러리가 되고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현실을

바뀌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방향이 진로탐색으로 그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 중심적 활동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채택하고 있다. 좀 더 간단하게 보면, 공부로 승부수를 걸지 않아도 되는 길들이 많으니 미리 그걸 찾아보고, 각자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보라는 것이다. 또는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다보니 불만이 많아지니 미리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배경도 있다.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재의 직업세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은 예전보다 예체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용음악학원을 비롯해 주지교과가 아닌 예체능 학원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닐까? 실용음악학원에서 대학의 실용음악과로 진입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지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는 더 많은 청년들 역시 명문대와 대기업을 지향하던 경주의 들러리와 다를 바 없어지면 어쩌나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이 보다 많은 음악가를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면 역시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교육부 정책자료.
- 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신철균, 황은희, 김기현, 김병찬, 김재철, 성열관, 오세희, 윤미선, 이원석 (2015). 자유학기제 전면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토론 2.

.....

진로체험활동의 지향점

토론2.

진로체험활동의 지향점

유정이(안양대학교)

1. 들어가기

‘百聞不如一見’이라는 옛말이나 ‘learning by doing’이라는 고전적 학습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육에서 ‘보고 듣고 해보는’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했을법한 초등학교 시절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과학실험의 경험이나 어머니를 따라 해 본 바느질이 자신의 손재주와 미적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는 어느 장인의 경험담은 진로발달에서도 체험과 경험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과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지고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진로체험 기회의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프로그램들이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앞선 발표에서 언급된 점,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또 현실적으로는 운영의 측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나 지도사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세편의 연구는 진로체험활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교육활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토론자는 앞선 발표를 다시금 음미하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관점을 추가로 제시하여 향후 연구와 사업추진의 지향점에 대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진로체험활동의 정체성 찾아가기

진로체험활동의 내적, 외적 성숙을 위해서는 우선 진로체험활동의 가치, 목표, 성과 등 진로체험 활동 자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앞의 원고들은 진로체험활동이 다음에 기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장래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 · 미래의 일에 대한 호기심 · 직업세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찾기
- 자기에 대한 이해 · 자신의 흥미영역이 무엇인지 생각 · 자신의 능력은 어떤지 탐색
- 직업에 대한 이해 · 활자정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업정보 이외의 생생정보
- 반성적 자기 관찰과 점검 · 초인지 기술 발달 · 진로의사결정과정 연습 · 직업활동이 자신의 흥미나 능력 또는 가치관과 맞는지 점검 ·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계획 대안탐색
- 현실적인 진로 계획수립 · 다양한 생애역할 고려 ·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 · 직업적응력을 높여가는 것 · 진로생애주제발견 · 자신과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나감 · 진로관련 연합적 학습경험의 생성 · 과제접근 기술향상 · 우연기술의 습득 · 진로관련 자기 인지도식 형성 · 직업세계에서의 긍정적인 자아상 구축 · 자기효능감 향상 · 직업인과의 실질적인 접촉 ·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업체험

실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이 확인되었다. 진로체험활동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성장과 도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체험활동은 외국의 그것과 달리 어떤 점에서 독특성을 지니는지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험은 그 자체가 진로성숙을 돕는다는 견해와 체험 그 자체가 아닌 체험이 자아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관점이 각각 존재한다. 어쨌든 진로체험활동은 활동자체가 아닌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재체험의 과정이 성숙과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체험의 사전사후과정이 중요하다. 진로체험활동이 지니는 고유한 효과를 프로그램별, 대상별, 운영주체별로 좀 더 치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차별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진로체험활동이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입장과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입장 등 이론적 관점과 운영목표 상의 차이등도 꾸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논점이다.

진로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혹은 성별이나 개인적 사유에 의해 진로탐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차등적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체험을 통해 어떻게 가치롭고 의미 있는 진로성숙을 경험하는지 그 성과를 발굴하고 증명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진로체험이 보다 많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방과후 교육과정이나 추가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은 원하는 만큼만 체험하는 자율성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많은 중도탈락 학생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유인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 높은 진로교육이 공교육재활의 한가지 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로체험활동의 가치, 목표, 성과 등 진로체험활동 자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는 진로체험교육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 및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개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운영과정이 필요하다. 앞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을 비롯한 6가지 체험 유형에 대한 비교 연구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 이상 부모세대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며, 부모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성공방정식이 요구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 온 방식대로 살기 어려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진로체험활동은 다음세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고기잡이 방식’이 될 것이다.

3. 진로체험활동 친화적인 환경 구축하기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진로체험활동 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두번째 지향점으로 제안한다. 모든 교육적 기회가 그렇듯이 진로체험교육의 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진로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앞서 원고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한 기회, 가족의 지지나 자원의 차이 등에 따라 경험의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시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냉담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기대수준과 자녀의 포부수준의 차이를 부모들이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한 논점이 된다.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체험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자녀들이 안전하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때로는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은 우리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가치를 공유하도록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역공동체의 의미가 비교적 희박한 우리사회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청년실업자수 52만명(통계청, 2016), 외국인근로자 수 98만명(통계청, 2015)인 상황에서 청년층의 진로방황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녀의 길어진 취업방황에 부모의 노후가 위협당한다는 이야기도 회자될 만큼 청년층의 진로 및 취업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가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진로체험활동이 이 모든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제시된 세 가지의 연구는 진로체험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